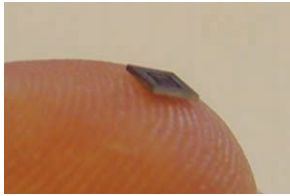




예스하이텍, UHF대역 RFID 태그칩 국산화

예스하이텍(대표 김승주 www.yeshightech.com)은 국내 최초로 UHF(900MHz)대역 무선인식(RFID) 반도체 부품(태그칩)인 '엔젤9'(ANGEL9·사진)를 공식 출시했다. 예스하이텍 측에 따르면 '엔젤9'는 512비트(b) 메모리(EEPROM)와 함께 Adaptive Impedance Tuning Circuit 등을 내장, 저전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칩 크기가 0.85×0.85mm로 업계 최소 수준인 '엔젤9'은 오는 9월쯤 양산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회사는 최근 국내외 대형업체들과 엔젤9 공급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RFID 태그칩 부문에서 올해 10억원 상당의 신규 매출에 이어 내년 2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스하이텍은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임핀지 등 그동안 해외기업들이 주도해 온 UHF대역 RFID 태그칩 시장에 본격 가세한다는 전략이다. 김승주 사장은 "엔젤9에 이어 1킬로비트(Kb) 메모리를 탑재한 UHF대역 RFID 태그칩과 함께, 메모리를 적용하지 않은 태그칩 등을 연이어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 UHF대역 리더칩 개발에도 적극 나서 국내 대표적인 RFID 반도체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직아이, 멀티미디어 칩 솔루션 'MMSP2+ L' 출시

매직아이(대표 손해운 www.mesdigital.com)는 비디오 프로세서 'MMSP2 L'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MMSP2 L은 올 초 출시된 MMSP2 후속 제품으로 동일한 듀얼 CPU 아키텍처와 PMP 기능 및 MPEG4 인코딩까지 가능한 비디오 프로세서다. 이 칩은 3D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3D 그래픽 엔진 및 각종 I/O를 포함하고 있다. MMSP2 L은 MMSP2와 100% 호환되기 때문에 기존 칩 이용 고객들이 HW나 SW 수정 없이 활용할 수 있어 개발비용이 추가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출형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PMP·광고단말기·디지털 액자 등에 장착하면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직아이 손해운 대표는 "이번 MMSP2 L 출시로 고사양 제품에 국한됐던 MMSP 제품군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며 "내달 중 협력사를 통해 리눅스 개발킷이 출시되면 다양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MSP2 L은 현재 샘플칩이 공급되고 있으며 올 3분기에 양산될 예정이다.

티엘아이 "1000억원 매출 달성과 합병 통해 본격적 성장기 진입"

팹리스 반도체 기업인 티엘아이(대표 김달수 www.tli.co.kr)가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다. 김달수 사장은 누적 매출 1,000억원 돌파를 기해 "사업구조를 재편해 성장기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창업된 티엘아이는 MP3용 디코더 칩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MP3P 한파로 한때 이 사업에서 철수할 정도로 존폐의 위기에 처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디스플레이용 타이밍컨트롤러 전문업체로 변신에 성공했다. 티엘아이는 또 LCD 구동 칩(LDI) 업체인 화인아이씨스를 인수·합병해 사업다각화와 거래선 다변화에 나서며 또 한번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김 사장은 "누적매출 1,000억원 달성은 주력인 타이밍컨트롤러 사업이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했다는 뜻"이라며 "화인아이씨스 합병으로 디스

플레이 핵심 칩인 타이밍컨트롤러와 LCD 구동 칩 제품의 공급이 가능해졌으므로 올해는 사업구조 재편을 완성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델릭스, 반도체 전문기업 전환

피델릭스(대표 안승한 www.fidelix.co.kr)는 기존 시스템사업부를 모바일시스템 자회사인 에프엔티(대표 허성욱)로 분사해 설립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시스템사업부가 분사돼 설립될 에프엔티에 33억원을 투입해 99.96%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며, 이후 에프엔티는 내비게이션·CDMA모듈 등 모바일시스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델릭스는 작년 2월 메모리 반도체 전문기업인 코아메직과 합병하면서 내비게이션 등 기존 시스템사업에 이어 반도체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이후 반도체사업부와 시스템사업부 등 2개 사업부를 운영해온 이 회사는 시스템사업부를 분사기로 함으로써, 메모리 반도체사업만을 진행하게 됐다. 장석현 이사는 "당초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반도체사업부에서 지난해 50억원 가량 흑자를 낸 반면, 시스템사업부는 168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시스템사업부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결국 관련사업을 분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시스템사업부 분사로 저전력 DDR 등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주력하는 등 팹리스(설계전문) 반도체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토LSI, 휴대폰 빅5 업체 고객사 확보

팹리스 전문업체인 토마토LSI(대표 홍순양 www.tomatolsi.com)가 휴대전화 빅5 업체 모두를 고객사로 확보하는 의미있는 결실을 이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업체가 올 하반기 노키아에 납품하게 될 LCD모듈에 토마토LSI의 LCD구동칩을 탑재기로 했다"며 "노키아 휴대전화 일부 모델에 토마토LSI의 LCD구동칩이 적용될 것" 말했다. 토마토LSI는 그동안 국내 LCD모듈 업체들에 LCD구동칩을 납품해왔으며, 이를 통해 제조된 LCD모듈은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등 휴대전화 완제품 업체에 공급됐다. 또한 토마토LSI는 대만 LCD모듈 업체를 통해 LG전자 휴대전화에도 LCD구동칩을 공급한 적이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공급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지난달부터 일본 세이코인스트루먼트에 QQVGA(128×160)급 LCD구동칩을 납품하고 있다. 세이코인스트루먼트의 LCD모듈은 현재 소니에릭스 휴대전화에 탑재되고 있다. 토마토LSI가 이번 노키아 휴대전화 일부 모델에 QQVGA급 LCD구동칩을 적용기로 함으로써, 노키아, 모토로라, 삼성전자, LG전자, 소니에릭스 등 전세계 휴대전화 빅5 업체 모두에 칩을 공급한 경험을 가진 몇 안되는 팹리스 업체가 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토마토LSI가 휴대전화 빅5 업체에 모듈 업체들을 통해 LCD 구동칩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삼성전자, 르네사스, 하이맥스, 노바텍 등 글로벌 LCD 구동칩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고 평가했다.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메모리 제어시스템 특허 취득

씨앤에스테크놀로지(대표 서승모 www.cnstech.co.kr)는 메모리 제어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에 특허를 획득한 기술은 이미 지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메모리로부터 읽거나 쓰기 위한 시간을 줄여주고 계산 절차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존 방식과 달리 이미지 블록의 사이즈에 따라 영향을 덜 받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 이미지 블록을 구성하는 각 이미지 라인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메모리내의



서로 다른 영역(뱅크)에 저장하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이미지 라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 고속 이미지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기술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승호 씨앤에스 반도체연구소 소장은 “이미 이 기술을 씨앤에스의 DMB 멀티미디어 칩 셋에 적용해 이미지 처리를 위한 메모리 접근을 간략화함으로써 저전력의 DMB 칩 셋을 구현하고 있다”며 “이 기술을 이용하면 DMB 멀티미디어 칩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셀로코, 연변과기대에 EDA툴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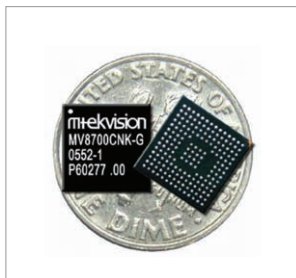
셀로코(대표 유영욱 www.seloco.com)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진경)에 반도체 자동설계(EDA) 툴인 ‘마이카드’ 50카피를 3년간 무상기증하기로 했다. 셀로코의 마이카드는 반도체 설계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순수 EDA 툴로, 원도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법이 간단해 설계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출시한 ‘마이칩 스테이션 프로 2007’은 칩 디자인 뿐 아니라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디자인이나 평판디스플레이 디자인도 지원하는 툴이다. 이번 기증하는 툴에는 새로운 EDA툴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셀로코는 중국 연길시에 중국지사 ‘셀로 친(Selo Chin)’을 설립하는 등 중국 영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유영욱 사장은 “마이카드가 IT 기술보급과 인재양성에 의미 있게 사용돼 기쁘다”라며 “연변과학기술대학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DS테크놀로지, 엔디코리아와 제휴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업체 MDS테크놀로지(대표 김현철 www.mdstec.com)는 일본의 계측장비 종합상사 니혼덴케이의 한국현지법인 엔디코리아와 손잡고 계측장비 유통사업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니혼덴케이는 1950년 설립되어 전자계측, 시험기기, 과학, 광학기기 등 5000여 협력사의 제품을 보유한 세계 최대 계측장비 유통업체로 지난해 6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MDS테크놀로지는 이번 제휴로 니혼덴케이 한국현지법인 전 제품의 국내 판권을 갖게 되었고 당분간은 소비자 수요가 많은 기구쓰이 브랜드의 전자계측 및 산업용 전원장치 분야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현철 사장은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 임베디드 테스트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면서 “계측장비 분야에서도 마켓리더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엠텍비전, MMP 사업영역 확대

엠텍비전이 기존 휴대전화에 국한된 자사 반도체 부품 라인업을 내비게이션, PMP 등으로 확대하는데 성공했다. 국내 대표 팹리스(설계전문) 반도체 기업인 엠텍비전(대표 이성민 www.mtelevision.com)은 디지털이동방송을 지원하는 멀티미디어프로세서(MMP)인 ‘메이플(Maple)’을 광성전자(대표 양호성)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메이플 공급량은 연간 100만개 이상으로, 광성전자는 메이플을 자사 ISDB-T 모듈에 탑재시켜 일본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특히 엠텍비전은 그



동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휴대전화 반도체 시장에 이어, 내비게이션과 PMP 등 새로운 디지털정보기기 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사업영역 확대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엠텍비전 측은 “품질인증이 까다로워 외국기업들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일본시장에 광성전자와 함께 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광성전자와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타 기업들과도 공조 확대에 나서, 거대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이동방송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넥스트칩, 고사양 보안용카메라 반도체

넥스트칩(대표 김경수 www.nextchip.com)은 고사양급 보안용 카메라에 탑재되는 영상신호처리칩(ISP)인 ‘NVP2120’과 ‘NVP2010’ 2종을 출시했다. 회사 측은 기존 보안용 카메라 ISP는 주사선이 480라인인데 반해 이들 제품은 주사선을 520라인으로 늘려 고해상도를 실현하는 한편, 기존 ISP 대비 크기를 30% 가량 줄임으로써 공간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작감지알람 및 자동노출, 자동화이트밸런스조정, 역광보정 기능 등을 추가했다. ‘NVP2010’의 경우, 디지털출력(27MHz·28.63MHz)을 지원함으로써 디코더가 필요 없으며, 프라이버시온 설정 기능이 더해지는 한편, CCD 결함을 자동으로 32개까지 보정할 수 있다. 고사양급 보안용 카메라에 적용될 이들 제품은 올 하반기 양산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2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이 회사 김동욱 이사는 “이들 ISP는 보안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보안용 카메라뿐만 아니라 자동차 후방감시카메라를 비롯해 도어록 등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펜타마이크로, 해외기업과 공조강화

펜타마이크로가 해외기업들과 공조를 강화, 보안용 반도체 토털 솔루션 구현에 나선다. 펜타마이크로(대표 정세진 www.pentamicro.com)는 이달 중 해외 2개사와 지분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펜타마이크로는 해외기업들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네트워크카메라(IP카메라)에 탑재되는 반도체 부품을 토털솔루션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펜타마이크로는 이르면 이달 중 캐나다 소재 인터넷TV(iPTV) 솔루션 개발업체와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현재 개발 중인 H.264 영상압축복원칩(코덱)을 인터넷TV 셋톱박스 등에 성공적으로 적용키 위해, 인터넷TV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등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캐나다 업체와 협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달 내로 미국 CCD 이미지센서 개발업체와도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 회사 정세진 사장은 “해외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안용 카메라 부품을 개발하는 한편,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용 영상압축복원칩에 네트워크인터페이스칩 기능 일부를 통합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 네트워크카메라에 탑재되는 반도체 부품에 따른 토털솔루션을 갖춘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 : 전자신문 www.etnews.co.kr, 디지털타임스 www.dt.co.kr